

‘공교로움’으로 이룬 청정한 자비



불화 속의 명장면 (9)

日 교토 천옥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상)



日 교토 천옥박물관(泉屋博物館) 소장 서구방필(徐九方筆) '수월관음도' (1323년, 충숙왕10년).

밤에 뒷산에 올랐습니다. 네온사인 환란한 도시의 밤이 발치 아래로 멀어져간 이후에야 달빛의 은은한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음이 아득히 사라진 뒤에야 달빛의 은화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린 듯 푸른 달은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그 달빛으로 숲 속 짙푸른 그림자의 환영이 만들어지고, 어느덧 '청정(淸淨)한 달빛 세상' 속입니다.

고려시대를 풍미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수월(水月)'이라는 그 서정적 정취 넘치는 명칭에 걸맞는 그윽한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고려 수월관음상은 풍만한 자세와 원만한 상호, 몸 전체를 덮어 흐르는 사라(紗羅, 극히 얇아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술), 지극히 공교로운 영락 장식과 섬려한 천의 문양, 금니(金泥)와 녹청으로 채색된 기

칸(小堂 서구방필(徐九方筆) '수월관음도' (1323년, 충숙왕10년)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 '신묘(神妙)의 경지'라 칭송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독자적인 고도의 '장인적 공교성(工巧性)'으로 이미 당시에 국제적인 정평을 얻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탕후(湯厚)가 저술한 '고금화감(古今畫鑑:외국화판)'에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그 기원은 당(唐)의 위치승에 두고 있지만,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수월관음의 치마와 투명 사라 부분.

그런데 이러한 고려불화 중, 필자가 꼭고 싶은

전신 감싸는 보름달같은 청정하고 온화한 신광 압권 정형화된 형식은 고려시대 귀족 불교의 보수화 입증

과한 압석대좌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가장 큰 특징은 관음보살 전신을 감싸는 보름달과 같이 둥근 신광(身光)입니다.

이 커다란 원광(圓光)과 더불어, 어두운 밤하늘의 배경에서 만월(滿月)이 떠오르듯, 청정하고 온화한 자비(慈悲)의 빛을 은은히 비추며 수월관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약 170점 집계) 중 약 75%의 점유율로 그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불화 주제는 아마타어래관련 작품(약 40%)과 수월관음도(약 35%)입니다.

단독 장르로 치자면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이 수월관음도이기에, 보통 '고려불화'라고 지칭할 경우 바로 이 '수월관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불화 장르는 그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회화적 특징이 정형화되어 매너리즘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의 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고정된 형식을 답습하는 경향에서, 그만큼 불화의 전통적 의례가 엄격했으며 또 고려시대의 귀족불교가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형화되어 유존하는 수많은 수월관음도 중에는, 화폭이 4m가 넘는 기념비적인 초대형 경신사(鏡神社)소장 수월관음도, 용왕과 용녀가 등장하는 다이내믹한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대덕사(大德寺)소장 수월관음도 등 활달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관음의 깊은 선정적 정취가 그윽하게 풍기는 작품으로는, 이 천옥박물관(泉屋博物館, 센오쿠하쿠오



의슬문양 디테일

섬려함은 극에 달했다(필자 의역)라고 명기되어, 고려 수월관음의 하이테크 화법은 중국 본토에서도 그 유명세를 떨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월관음의 그 시원적 형식은 당(唐)대 수월관음도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수월관음의 연원을 논할 때 단골로 언급되는 일련의 이들 돈황 출토 작품들은 매우 고졸한 필치이고 작품 크기 또한 현저히 작아, 상기와 같은 독자적 양식으로 정립된 '고려 수월관음도'와는 그 화질

화려하나 넘치지 않는 옷 처리로 존상 신비로움 더해 정도와 禪적 특징이 만나 '기교 넘어선 기교' 구현

과 품격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밀한 절선묘로 그려진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보상화문, 국화문, 당초문, 구름문 등)이 가득 수놓아진 얇은 옷이 몇 겹씩 겹쳐 지극히 복잡한 구성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문양의 흥분과 중첩되어 비치는 천의 레이아웃에서 생기는 난해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이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통 고려 불화는 국제적으로도 극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의슬문양 디테일

월관음도를 통해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는 '청정한 달빛 자비(慈悲)의 세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 즉 선재동자의 53(또는 54)선지식의 권력 중 28번째인 보타라카 신정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과의 대면하는 장면이 그 도상학적 연원을 두고 있다고 관습적으로 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계속)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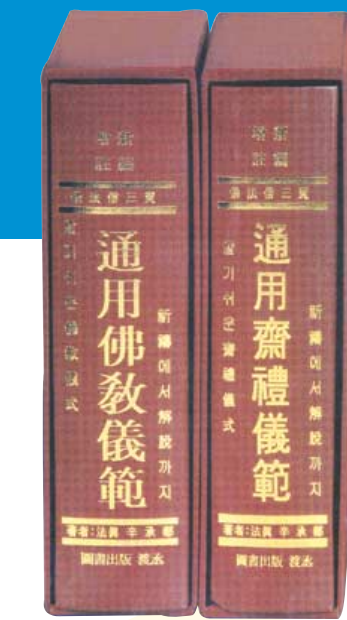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보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줍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證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송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제불보살명칭의식 제불보살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제9장 이운편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루 마하리야 바리밀

編·著者 法眞 辛承都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齋禮님께 집합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가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매장
-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제 천수다라니 지장제 영산대제 괴불은 권희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입쌍생칠재(預修十往生七齋)
-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禮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범용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